



정보 두울

과연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는가 ?

1. 구제역이란 무엇인가요?

구제역(FMD)이란 말 그대로 우제류 동물(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입과 발굽 주위에 물집(수포)이 생겨 번지면서 그 전파속도가 크고 가축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전염성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구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2. 구제역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구제역은 PICORNAVIRIDAE APHTHO-VIRUS라는 작은 RNA바이러스로서 7개의 혈청형이 있는데 주로 O형이 많이 발생한다. 이 바이러스는 가축에게만 병을 일으키며 사람에게는 병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

3.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데 왜 세계 각국은 구제역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구제역은 한번 발생이 되면 그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한 가축에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 예방이 최선이다. 이병이 발생한 국가의 축산업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구제역 발생이 심각했던 대만의 경우 양돈 농가가 약 2조 4천억원의 손해를 보고 국가적으로 한해에 약 8조9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따라서 각 국은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육류 수출을 못하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예방 및 방역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축산업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각국은 구제역이란 가축 질병을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 안되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전하다. 또한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56도 이상의 열에서 30분 정도 가열 시 사멸된다.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육류는 국내산이든 수입육이든 안전하다. 한편, 구제역은 근본적으로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걸리는 병이며 타동물이나 사람에는 감염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기중에 비산되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람이 호흡할 때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상부 호흡기 내에서 약 3일간 머물 수 있지만 자연소멸함으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 OIE, FAO, WHO, CDC 등 국제기구에서 구제역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구제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

1. 미국농식물방역청 (www.aphis.usda.gov)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며 축산식품 유통상 사람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이 환축과 접촉할 시 호흡으로 흡입되어 비강내 약 28시간동안 머물 수 있음으로 사람이 동물에 구제역을 전파할 수도 있다.

2. 영국정부 (www.maff.gov.uk/animalh)

보건부는 사람이 구제역에 감염되는 경우는 아

주 드문 경우로 보고 있다. 1966년 영국에서 사람이 구제역에 감염된 유일한 기록이 있다. 이 경우 임상증상은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한 경미한 증상이 단기간 지속되었으며 자연치유되었다. 식품규격청 (Food Standard Agency)에서는 이 질병이 사람의 식품위생에 전혀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다. 단, 가축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수족구병 (Hand, Foot and Mouth disease)이란 사람의 질병이 있는데 이것은 구제역과는 관련이 없다.

※식품규격청 (www.foodstandards.gov.uk)에 의하면 1966년 영국에서 우유에 의한 사람의 구제역 감염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함

3. 일본 농림수산부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를 혹시 섭취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

4. 아일랜드 정부 (www.irlgov.ie/daff/AreasofI)

구제역은 인체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감염된 가축과 접촉시 아주 드문 경우에 있어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감염된 가축의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사람이 경구 감염되지는 않는다.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